

##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명절 가정예배

인도자 : 가족중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301장 ..... 다 같 이  
기 도 ..... 인 도 자  
성경말씀 ..... 시 136:10-1 .....인 도 자  
설 교 .....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 말 은 이

오늘은 민속 명절인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우르는 찬송시입니다. 천지창조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과정을 감사의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내용이 감사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기도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에 기록된 노래는 그 광야 시절에 대해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감사의 노래로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참으로 아프기만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치 눈앞의 어려움과 고통이 전부인 양 쉽게 절망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광야를 지난 후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지은 시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 결론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밟아온 모든 목마름과 갈증과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날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도 훗날 감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원망과 불평보다 소망과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기도 했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어쩌면 인간으로서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롬 8:28).

욥은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몸에는 심각한 질병이 찾아와 죽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때 욥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욥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며 찬양하였습니다. 욥은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욥 42:10).

시편 136편에는 모든 절에 같은 문구가 반복됩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근거는 “영원한 인자하심”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영원한 사랑”, “견고한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모든 상황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견고한 사랑 때문입니다.

울 한해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응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세상은 우리가 비천할 때는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힘 있고 잘 나갈 때만 관심을 줍니다. 호텔에 가면 주차를 안내하는 사람이 비싼 차에는 90도 인사를 해도 가격이 저렴한 차가 오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비싼 차는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지만, 값이 싼 차는 지하 가장 아래층에 주차를 안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지하 가장 아래층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윗이 아돌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사자 굴에 갇혔을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 연약하고 피곤할 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손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10장 ..... 다   갈   이  
주기도문 ..... 다   갈   이

## 2024 추석명절

# 가정에 배순서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은교회

